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30일 화요일 음 2월 18일 (10월)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대체로 맑겠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2℃, 낮 최고기온은 18~19℃로 전망된다.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가와 갯바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snow, and fog.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Table with 3 columns: 내일, 구름 많음, 11/20℃.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oday and tomorrow.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Rows show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월드뉴스

57세 여성 뇌종양 극복하고 아들 낳아...

딸 떠나보낸 후 출산 결심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 유지



57세에 아이를 출산한 히긴스.

미국에서 뇌종양을 극복하고 아이를 낳은 57살 여성이 화제다.

28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콩코드에 사는 바버라 히긴스는 지난 20일 체외수정(IVF)으로 임신한 아들 짝을 출산했다.

출산 당시 짝의 몸무게는 2.6kg으로 조금 작았지만 건강했다.

히긴스와 남편 케니 벤조프(65)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기로 결심한 건 2016년 13살이던 둘째 딸 물리를 뇌종양으로 떠나보내면서부터다.

그러나 히긴스가 아이를 배고 낳는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임신해도 괜찮은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뇌종양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히긴스는 안 그래도 고령이라 임신이 쉽지 않았지만, 임신을 포기하지 않고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결국 셋째를 낳는 데 성공한 히긴스는 "꿈이 아니다. 이 나이에 갓난아이를 가졌다"면서 "무섭고 불안한 면도 있지만 기쁘기도 하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육상 코치로 재직했던 히긴스는 꾸준한 운동 덕에 고령과 뇌종양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출산 직전까지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이를 트위터에 공개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한라칼럼



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독자위원

에전 어느 대통령 후보는 욕쟁이 할머니를 광고로 끌어들이 서민적 이미지를 홍보했다. 언뜻 욕이 이미지 홍보 수단이 된다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광고는 욕이 아니라 욕을 하는 할머니의 이미지가 주요 홍보수단이 됐다. 이전 드라마에서 차용되기도 했던 욕쟁이 할머니의 이미지는 입은 거칠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넉넉한 우리네 심성 고운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욕은 배고픈 손님에게 국밥 한 그릇 슬며시 내어주고, 거칠지만 진솔하게 마음을 표현했던 서툰 다정함이었다. 애정이 담긴 욕은 때로는 정겨움과 친

우리 시대의 언어 II

밀함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격려와 위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욕은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어이고,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 하더라도 욕일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에게 좋은 말을 쓰라고 훈육하는 이유는 언어가 습관으로 굳어지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든 욕두문자와 욕이 입에 잘 달라붙고, 입에 붙은 언어는 쉽게 그 사람의 언어가 된다. 학교와 사회에서 친구끼리 악의없이 내뿜는 욕두문자는 우리 시대가 욕을 욕으로 여기지 않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 욕이 아무렇지 않게 쓰이는 사회는 위험하다. 최근 언어가 폭로되는 학교폭력 사례에서 언어폭력의 심각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언어폭력이 사람의 마음에 남기는 깊은 상처는 그동안 애써 무시돼 왔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갖기도 하고, 살인을 부르기도 한다.

포털 사이트의 연애와 스포츠 기사의 댓글창이 폐지됐다. 인터넷 댓글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공론의 장이다. 인터넷이 추구하는 표현의 자유의 전진기지이자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는 언어폭력의 공간이기도 하다. 역기능에 대한 우려로 단행된 연애와 스포츠 기사의 댓글 규제는 사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이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도를 넘어선 세대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기사에 대한 댓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댓글은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넘쳐나 건전한 비판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

정치 언어는 또 어떤가. 정치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올바른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정치 언어는 정제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구사돼야 한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하기 위한 저급한 언

어가 아니라 배려와 논의를 위한 여백이 있는 언어여야 한다. 차별과 배척의 언어가 아니라 포용과 관용의 언어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저 너머에 있다. 졸지에 '중증 치매환자'가 되거나 '아줌마'가 되기도 하고, 하물며 '쓰레기'가 된다.

우리 시대의 언어는 어쩌면 욕쟁이 할머니의 서툰 마음이 아니라 거친 욕만 받아들이고, 정성스럽게 고아낸 국밥 한 그릇을 말끔히 비우면서도 감사하는 마음까지 비워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언어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 마음은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언어에 담고 있는 것일까. 원한과 증오와 분노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 시대의 언어가 마음을 아우르고 치유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팍팍한 봄 서로에게 건네는 따스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로 마음의 봄을 부를 수 있기를.

엘린마당

업무에서 일상까지 청렴 감수성 높이자



이혜선 서귀포시 도시과

요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산거려 의혹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니 처음엔 놀라웠고, 날마다 추가되는 보도에 과연 어떻게 조치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진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지속적으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청렴 정책을 운영해 왔다. 그리고 청렴을 저해하는 많은 행정 관행들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렇게 청렴한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는데, 많은 이들의 노력과 관계없이 어딘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배신감이 느껴진다. 같은 공직사회에 있으면서도 이런 감정인데, 일반 시민들이 어찌 느끼지 공감할만하다.

이번 사건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3월의 혜택 '자동차세 연납 신청'



오진희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영업용차량은 1000cc(18원)-2500cc(24원)으로 세분화돼 있고 세액이 낮은편이며, 비영업용은 1000cc(80원)-1600cc(200원)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1년치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납부납짜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에(9%), 3월(7.5%), 6월(5%), 9월(2.5%)으로 시기가 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공제율이 가장 높다.

1월에 연납신청을 못했더라도 3월에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7.5%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ARS(1899-0341),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입금, 신용카드 ARS(1899-0341), 위택스홈페이지 납부 및 동주민센터에서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한편 이미 연납한 차량을 매각이나 폐차 하더라도 말소등록일 또는 소유권 이전 일까지 일할 계산후 환급 받을 수 있다. 혹시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후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 하더라도 정기분 부과시 공제전의 세액으로 가산금 없이 정상 부과된 불이익은 없다.

아무쪼록 많은 납세자들이 연납신청해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highlighting its benefits for soil pH, nutrient balance, and crop yield. Includes contact info for Nonghyup Co. Ltd.

Advertisement for 'Ganggul Myeomok' (Ganggul Myeomok) insurance, listing various types of insurance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Jukan Nongop Nongchon Sosik' (Jukan Nongop Nongchon Sosik) providing information on agricultural insurance and services.